CALS newsletter No. 36 2016. 9.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ewslette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식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발행인 : 정철영, 편집인 : 이인복
편 집 : 대외협력 · 홍보위원회
(강문성 · 신찬석 · 안동환 · 여환명 · 윤희연 · 이기훈 · 이은진 · 조철훈)

농생대, 역사적인 농학교육 110주년 맞아

정철영 학장 기념식사

우리 대학의 개교 110주년을 맞아 9월 10일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농학교육 110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은 1906년 농림학교로 출범한 이래 올해로 역사적인 11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 1부 순서는 동창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로 시작되었고, 이후 기부자의 벽 제막식 및 농학교육 110년 사진전 관람이 있었다. 기념식 본 순서는 14:00부터 전창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황인규 기획부총장, 정철영 학장, 류관희 동창회장, 최윤재 농학교육 110년 준비 공동위원장,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정철영 학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학은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급변하는 정세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왔음을 역설하였고, 2015년부터 추진 중인 CALS VISION 2020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과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류관희 동창회장도 축사를 통하여 농생대의 오랜 역사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시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축원하였다. 이후 최윤재 교수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이학래 교수가 '수원상록 백년과 우리의 CALS'라는 제목으로 농생대의 긴 역사를 돌아보는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박은우 교수는 '농생대 혁신을 위한 제언' 강연을 통하여 농생대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인복 교수가 농학교육 7대 뉴스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CALS 체험수기 및 홍보 UCC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대 음대 중창단 축하 공연 및 현정오 명예교수의 선창에 따른 상록의 아들 제창을 끝으로 본 순서를 종료하였다. 본 순서가 끝난 뒤에는 농생대 동아리 두레와 샌드페블즈 OB가 축하공연을 하였고, 이어진 축하 소연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기념식은 1906년 개교 이후 계속하여 우리나라 농학교육의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우리 대학에 대한 자축의 의미는 물론, 향후 세계적인 농생명과학의 중심지로 거듭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1~7면_농생대 헤드라인
8~9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2면_Interview
13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4면_농기자가 간다
15면_기금출연
16면_농생대 사람들

농학교육 110년 기념식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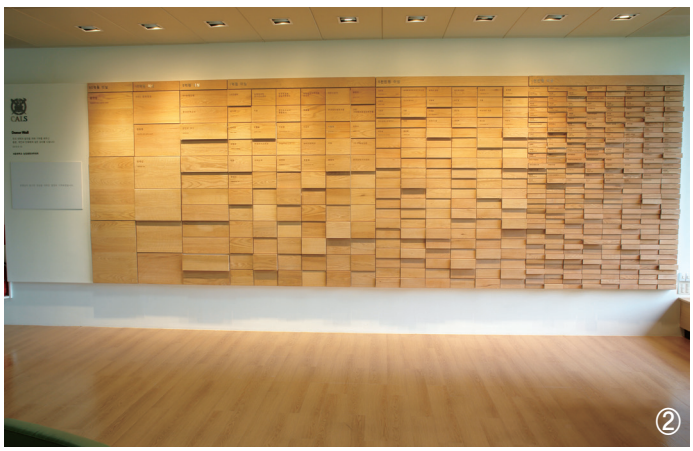
④

① 기념식장 전경
② 박찬욱 교육부총장 축사
③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축사
④ 류관희 동창회장 축사
⑤ 방명록 작성하는 동문들
⑥ 농학교육 110년 사진전을 관람하는 동문들
⑦ CALS 체험수기 및 홍보 UCC 공모전 시상
⑧ 농악 동아리 두레의 공연
⑨ 샌드페블스 OB의 열창
⑩ '상록의 아들' 제창

발전기금 기부자 현판 제막식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과 우리나라 농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주신 동문, 교직원, 학부모, 외부 기업체 등 기부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부자의 존함을 새긴 'Donor Wall'을 조성하여 9월 10일 200동 로비에서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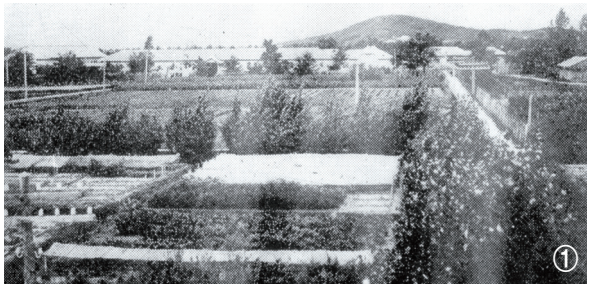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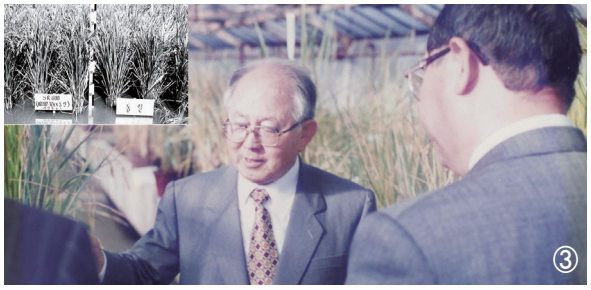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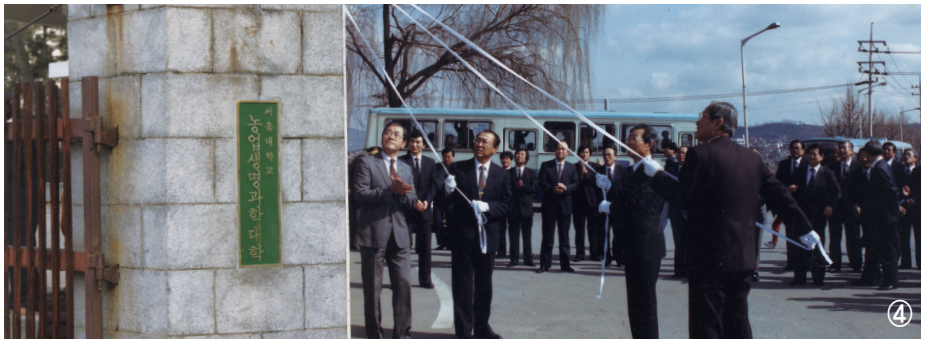
① 발전기금 기부자 현판 제막식 ② Donor Wall 정면 ③ 제막식에 모인 동문들

농학교육 7대 뉴스 선정 작품





① 1906. 9. 10. 첫 수업 시작과 함께 개교기념일로 지정
② 1946. 8. 22. 국립 서울대학교에 농과대학 설치
③ 1971. 허문회 교수 '통일벼(IR667)' 개발
④ 1992. 3.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⑤ 2003. 9. 23.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
⑥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⑦ 2014. 6. 12.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준공



주제별 농학교육 110년 사진 선정 작품

① **캠퍼스의 모습** – 대학 전경(1960년대)
② **기념식 광경** – 개교 60주년 기념식(1966)
③ **교육 실습 광경** – 벼의 생육조사 실습
④ **학교 행사 모습** – 총학 투표(1999)
⑤ **일제하의 민족운동** – 한인학생들의 풍년춤 (민족운동의 일환)
⑥ **학생들의 행사** – 미스터 농대 선발
⑦ **글로벌 행사** – 외국인 재학생 및 교수 초청행사 (2011)

김경욱 교수 정년퇴임식

김경욱 교수 정년퇴임식

우리 대학은 9월 2일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교수(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김경욱 교수는 1981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후 35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생대 교무부학장, 농림부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여 농기계학의 교육과 연구에 공헌하였다. 또한 재직 중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설계, 시험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농작업의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에 헌신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지금까지의 강의와 연구 자료를 정리해 농기계 산업 연구에 보탬이 될 전문서적을 쓸 계획을 밝혔다.

농생대 학생상담실 「농:담」 문을 열다!

인터뷰 중인 이상욱 기자와 박혜연 상담사

지난 4월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상담실 「농:담」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농:담」은 개인 상담과 각종 심리검사, 집단 상담 및 특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실이며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생,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최근 심리 상담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과대 내에 학생상담실을 만든 것이다. 「농:담」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담」에서는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 각종 심리 검사와 특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 상담은 상담 전문가와 1:1로 만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대인관계/진로/취업/학업/가족문제/성격/불안-우울/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인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집단 상담은 비슷한 관심과 문제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대화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성격검사, 진로검사, 정서검사, 학습검사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시작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담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농:담」 박혜연 상담사에 따르면 상담실 개소 후 지속적으로 상담 신청이 있으며, 보통 예약이 일주일 정도 사전에 이루어진 상태이다. 학생들은 상담을 받고 난 후 '가까운 곳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다', 단과대 내에 상담실이 생겨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통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다'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상담실 전경

개인 상담실

최근 「농:담」을 방문한 기자단의 이상욱 학생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다. "입구에서부터 상담 선생님이 밝게 맞아주셨고 가운데 작은 원탁을 두고 마주 앉아 상담을 시작했는데, 아늑한 분위기에 녹아든 저는 어느새 상담사 선생님에게 제 이야기를 술술 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상담 요지를 상세히 작성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상담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상담실 방문을 통해 꼭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상담사 선생님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덜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상담실 한쪽 선반에는 책들이 꽂혀 있는데 별 일이 없더라도 상담실에 와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종종 「농:담」에 들러 쉬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의 박혜연 상담사는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들에게 다음의 말을 전했다. "상담은 문제가 많은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농:담」은 나를 사랑하고, 편안해지고 싶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구성원 분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농: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은 75-1동 209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된다. 상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실 전화번호 02-880-2297 또는 이메일 주소 cals_counsel@snu.ac.kr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무언가 고민이 있다면 주저 없이 「농:담」의 문을 두드려보자.

학생기자단 제5기 **이상욱**, 제6기 **신혜선**

2016 CALS 고등학생 진로캠프

2016 CALS 고등학생 진로캠프가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에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캠프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학습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관련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며, 광양고등학교 등 지역 출신 고등학교 1학년생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캠프는 2년 연속으로 만족도 4.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부학술림 박창권 주무관, 서울대 느티나무상 수상

남부학술림에 근무하는 박창권 주무관이 7월 21일 서울대 느티나무상을 수상하였다. 느티나무상은 2009년 약대 장일무 명예교수의 기부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서울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 친절과 업무 능력을 겸비하고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인 직원,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 등을 수상자로 선정해 오고 있다. 박창권 주무관은 남부학술림에 산림환경 교육시설인 '특성별 수목관찰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여 약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목관찰원을 활용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2016 CFB & GBST 공동 워크숍 개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소장: 김용노 교수)는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월 11일 평창캠퍼스 100동 211호에서 '2016 CFB & GBST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에서 장판식 교수와 조철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그린바이오기술연구원에서는 식품산업화연구소의 김도만, 정동화 교수 및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의 허철성, 강상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참여 연구원 및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원생 등 관련 연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공동 워크숍을 통하여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자들 간에 다양한 연구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규과제 발굴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농업생명공학의 이해' 교육 실시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소장 강병철 교수)는 8월 8일부터 12일에 걸쳐,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생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업생물공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소재 교사(1기 11명) 및 고등학생(2기 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고등학생과 교사들의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학장 일행 러시아 연해주 방문

우리 대학 정철영 학장 일행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이인복 기획부학장, 김완배 교수, 임정빈 교수, 김도순 교수 등이 동행하였다. 학장 일행은 일정 동안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업체들과 농장, 러시아 극동개발부 등을 돌아보았다. 이번 방문은 연해주에 대한 해외식량기지 확보 사업과 국내 농산업 해외 진출에 향후 농생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교토대와 MOU 체결

베트남 달랏대와 MOU 체결

일본 교토대, 베트남 달랏대와 MOU 체결

우리 대학 정철영 학장 일행(이인복 기획부학장, 전창후 교수)은 8월 22일 교토대학교를 방문, 우리 대학과 교토대학교 농학부(우리나라 학제상 농과대학에 해당) 사이에 MOU 및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 서명식 이후에는 교토대 농학부의 교육 · 연구 · 국제협력 지원시스템 소개를 받았다. 교토대학교는 2016년 QS 세계대학순위 37위(농임학분야 33위)를 기록한 일본 굴지의 명문 대학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성과 공유, 학생 교환 등 실질적인 상호 교류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향후 두 대학의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8월 25일에는 베트남 달랏대학교(Da Lat University)를 방문, 달랏대학교와 MOU 체결식을 가졌다. 달랏대는 베트남에서 가장 비옥하고 높은 생산성을 지닌 달랏 지역에 위치하여, 농업관련 연구시설 및 고등 교육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 및 람동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 대학은 달랏대가 우리 대학의 주요 교육과정과 연구소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현지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고자 2015년 전창후, 이은진, 김완배 교수 등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업기술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리 대학과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실질적 국제교류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학년도 2학기 학문후속세대 목운장학금 및 졸업최우수 장학금 수여식

8월 30일 학장실과 소회의실에서 2016학년도 2학기 학문후속세대 목운장학금 및 졸업최우수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목운문화재단 졸업최우수 장학금은 2016년 8월 졸업예정자이며 2016학년도 2학기 농생대 대학원 입학자 중 전학년 성적 최우수자에게 수여되며, 학문후속세대 목운장학금은 졸업최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대학원에 진입하면 계속 수여되는 장학금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정철영 학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목운문화재단 한인규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 **학문후속세대 목운장학금:** 김석환(작물생명공학), 조성민(환경재료과학)

※ **졸업최우수 장학금:** 박민정(원예생명공학)

송훈 셰프 특강

파반 수크테브 특강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특강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자신감을 함양시키고,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7학년도 2학기부터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7월 특강은 7월 6일 대강당에서 송훈 셰프가 '셰프 송훈의 끝없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SG DINEHILL 총괄 셰프인 그는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죄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했고, 또한 항상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요리를 한다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9월 특강은 9월 7일 대강당에서 환경경제학자 Pavan Sukhdev씨가 'Green Economy, TEEB, and Corporation 2020(녹색경제, 생물다양성, 그리고 2020년형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환경경영 컨설팅 회사 GIST Advisory의 창립이사 및 최고경영자로 유명한 그는 이번 특강에서 단순한 이익창출을 넘어선 자연과의 공존을 염두에 둔 경제활동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총장배 준우승을 차지한 농생대 축구부 휘모리를 만나보다

지난 5월 농생대 축구부 휘모리는 관악캠퍼스에서 휘모리가 활동한 이후 최고 성적인 '총장배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 영광 뒤에는 휘모리 부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연습시간이 있었다. 휘모리가 총장배 준우승에 오르기까지의 생생한 과정과 그들의 노력을 듣기 위해 휘모리 주장을 맡고 있는 농경제사회학부 이진길 학생을 만났다.

빗장수비, 관악을 흔들다

농생대 축구부 휘모리는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2016 총장배 축구대회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르마다(지난 대회 3위), 에코플러스(리그 2위) 등의 강팀을 차례로 제압하며 대회 다크호스로 떠오른 휘모리는 결승무대에서 지난해 우승팀 싸커21A를 상대로 연장 119분 혈투 끝에 1 : 2로 아쉽게 패배했다. 그러나 약팀이라는 주위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강한 집중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대회 준우승은 물론 최소 실점과 최우수 골키퍼(농경제사회학부 성정현) 배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그들은 의심의 여지없는 대회 최고의 팀이었다. 주장 이진길 학우는 "아쉽다. 팀원들이 잘해주었고 내용이 좋았다. 회사원이 된 선배들께서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우승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간 휘모리에 대한 평이 좋지 못했지만, 지난해(4강)에 이어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둬 팀 전체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라며 대회에서의 연이은 호성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아르마다전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전통적인 강팀이자 휘모리가 단 한 차례도 이겨보지 못했던 상대를 맞아 팀원들이 하나로 뭉쳐 철저한 분석과 투지를 바탕으로 승리를 일궈낸 순간 그는 마치 우승컵을 들어 올린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진길 주장은 "이 경기 이후 팀원들의 자신감과 결속이 한층 올라갔던 것 같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휘모리를 '승리'로 이끈 요인들

휘모리가 이번 총장배 경기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체계적인 훈련이 꾸준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휘모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정기 훈련을 진행하며, 주말에는 S리그 경기에 출전해 실전 연습도 병행하고 있다. 이진길 학생은 주장을 맡은 이후 출석부 관리를 통해 훈련을 더욱 체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는 "출석부 관리를 통해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경기 출전 기회를 줌으로써, 연습에 상관없이 잘하는 선수들만 출전한다는 인식이 줄고 총 연습량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긴 것 같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또한 상대 팀 선수들의 전력을 꼼꼼히 분석해 전략을 짠 것과 더불어 부주장과의 연합을 통해 훈련을 더욱 체계화시킨 점도 휘모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휘모리가 농생대 통합 동아리라는 점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과동아리에서 시작해 농생대 축구 동아리로 통합된 후 휘모리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는 동아리의 선수풀을 더 넓힘과 동시에 과에 국한되지 않고 축구에 열정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도록 기여했다.

인간적인 축구부, 휘모리

앞으로 한 학기 더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어 갈 이진길 주장은 "모든 농생대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축구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성장해나갈 휘모리의 미래를 전망했다. 또 "농생대 축구 동아리 휘모리가 관악캠퍼스에서 '강팀'의 이미지를 갖도록 구축하고 싶다."고 전하며 주장으로써의 포부를 밝혔다. 휘모리에 들어오기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휘모리는 인간적인 축구부라는 것을 장담한다. 휘모리는 선후배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 멤버들간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장배 축구대회를 준비했던 휘모리 소속 학생들의 노력과 이진길 주장의 포부에서, 2학기에 있을 학장배 축구대회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낼 그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학생기자단 제5기 **박유빈**, 제6기 **김동준**, 제7기 **김민지**

매주 정기훈련

총장배 경기 후

총장배 최우수 골키퍼 시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허건량 동문을 만나다

허건량 동문(원예학과 · 77)

허건량 동문(원예학과 · 77)은 우리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농촌진흥청에 입사하였고, 올해 2월 18일자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품종육성과 재배, 첨단 원예특작기술 개발 및 도시농업 모델 개발 등 원예특작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근 40년을 원예 분야에 몸담으면서 관련 분야 연구 지원 및 연구 수행 등으로 많은 것을 이룬 그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원예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원예 외길 40년

그는 1977년 원예학과에 입학했을 때부터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학부 3학년 때부터 원예학과 화훼학실험실에서 생활하며 대학원생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러던 중 그는 전 농대 교수 류달영 박사님의 "앞으로 미래에는 시설 안에서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 빛과 물과 양분을 다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시설 내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는 화훼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화훼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화훼분야에서 연구하기를 원했던 열망이 강했던 나머지 연구직 시험에 2번이나 합격했던 특이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1986년에 처음 연구직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화훼 분야에 자리가 없어 임용을 유예했다. 결국 화훼 분야에 연구직 자리가 생겼던 1989년 다시 연구직 시험에 합격한 뒤에야 비로소 화훼 분야의 연구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원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그의 역할은 직접 연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9년 농업연구사로 입사해 연구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등을 역임하기까지 그의 주요 업무는 연구원들이 편하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연구행정 경험이 훨씬 많아 연구자로서 특출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연구 기획 및 지원 분야에서 공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화훼과장으로 근무하게 되고, 마침내 올해 2월 18일에는 원예특작과학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원예특작과학원에서의 결실

그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몇몇 굵직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화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화훼류의 로열티 지급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열티대응사업단'을 이끌어 장미, 국화, 난 등의 국산품종 보급률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예전에 90%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던 국내 재배 딸기를 현재 오히려 90% 이상 국산 품종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 품종으로 동남아에서 수출액을 3,300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는 원예특작 분야에서 이룬 수많은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40년 경력의 원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식량 분야의 농업 정책이 농지축소, 밭 농업 기계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 등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고,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지만 포화 상태에 와 있는 축산 분야의 농업 정책을 생각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농업 돌파구 중 하나는 원예 분야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예특작산업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 수출농업, 그리고 6차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선두에는 원예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원예특작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한다면 농업 분야에 획기적인 도약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농생대 후배들에게

"혹시 연구원이 되고자 한다면 시험공부는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 가고 싶은 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하지만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더 바라는 바가 있다면, 농생대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원예특작과학원 등의 연구기관이나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일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답게 제4차 산업혁명, 즉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발전의 흐름을 손에 넣고 이를 어떻게 농업에 접목하고 융 · 복합하여 농업을 발전시킬까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후배들을 향한 그의 말에서 원예 분야에 몸담았던 본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허건량 동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기자단 제4기 **나혜지**, 제6기 **송이레**, 제7기 **안예진**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열일곱 번째 주인공은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장판식 교수!

장판식 교수
(식품생명공학전공)

장판식 교수는 1984년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1991년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 박사학위를, 1995년에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그는 현재 한국식품과학회와 미국식품과학회, 미국화학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서울대학교 부임 후에는 식품생명공학전공에서 효소공학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판식 교수는 '원료물질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술회했고, 1학년이 끝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식량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원료 농산물을 활용,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데 관심이 많았고 식량문제에 관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재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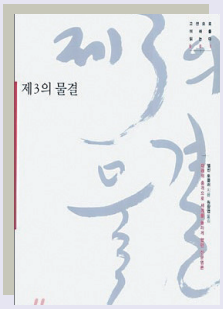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장판식 교수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문을 떼었다. 그는 농생대 야구부 주전 선수로 활동할 만큼 열심히 야구를 했으며, 농생대 대표로 우승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또한 농생대 야구부 주전 2루수로 활동을 하면서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삶 자체가 즐거워져 학업에도 충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장판식 교수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역할론'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그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바라보고 개인에 맞는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생대 학생이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좌절하는 학생이 많다고 걱정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면만 보기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알고 자신이 사회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말을 마쳤다.

도서 추천



『제3의 물결』 (저자 : 앨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가 말하는 인류 문명의 어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장판식 교수는 학생들이 〈제3의 물결〉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제3의 물결〉은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에 이어 제3의 물결인 고도 정보화 사회를 설명하고 미래가 고도 정보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독자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앨빈 토플러는 "인류가 제3의 물결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가진다면, 새로운 정신 체계를 재구축하여 훌륭한 미래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사회에 대하여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장판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생대 학생이라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역할을 찾았으면 한다고 조언을 건넸다. 학생들이 〈제3의 물결〉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며 말을 마쳤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장판식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 교수. 김관수 교수의 추천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학생기자단 제5기 **임다빈**, 제6기 **김수연**, 제7기 **성가영**

〈2016. 7. 11. 한국농어민신문〉

채소육종연구센터 연구 6년차 성과 주목…전문육종인력 양성 · 현장 투입 본격화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채소육종연구센터(센터장 강병철 교수)가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육종인력 양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채소육종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강병철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를 만났다.

▲인터뷰/강병철 서울대 교수=채소종자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육종기술이 앞서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걸림돌도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종자산업이 위축되고, 생명공학 위주의 연구와 교육으로 인해 대학에서 교배육종인력이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채소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채소육종연구센터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5년 창출된 국가연구개발(R&D) 우수성과 100선에 채소육종연구센터의 '종자강국을 선도할 현장육종인력 양성' 연구가 포함됐다는 연락이 왔다. 인프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종자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품종개발 및 기반구축을 위한 GSP(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과 함께 종자산업의 핵심인 전문육종인력육성사업에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서상현 기자

〈2016. 8. 11. 농수축산신문〉

농산업 연계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김완배 교수팀, 연해주 농업개발사업 발표

국내 농산업과 연계한 연해주 지역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연해주 지역의 농업경쟁력은 낮은 편이지만 기후온난화 등 농업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역시 극동러시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의 연해주 지역 해외농업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측에 연해주 농업개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 지난해 3월 한-러 공동연구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공모, 최종적으로 서울대 김완배 교수 연구팀이 선정돼 최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연해주 농업개발사업 제안발표'를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 연구를 맡은 김완배 서울대교수는 "이번 연해주 농업개발 연구는 해외식량기지 건설을 통한 곡물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국내 농자재, 농산물가공 및 유통 등 농업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차원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연해주지역 농업개발은 농산업 복합단지 조성과 물류기능 강화,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련 산업 활성화 등으로 동북아 경제의 허브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남종 기자

〈2016. 8. 30. 대덕넷〉

15년 연구결실…미세조류에서 모유(母乳)가

국내 연구진이 15년의 연구 끝에 미세조류에서 모유의 중요한 영양소를 찾아냈다. 주인공은 서진호 서울대 교수팀이다. 서 교수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모유의 주요성분을 파우더형식으로 만들어 우유에 타먹을 수 있도록 개발, 관련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 연구에 매진 중이다.

그가 모유의 영양소를 찾은 근원지는 일반 미세조류가 아닌 버려지는 '부산물'이다. 식물과 미생물(미세조류)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를 얻어낸 후 버려지는 부산물에서 모유의 신비를 찾은 것. 미세조류에서 고갈위기에 처해있는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모유와 맞먹는 영양분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연구실 지인의 모유를 분석하고 미역 속 퓨코오스를 찾아내기 위해 미역이 유명한 완도에 직접 다녀오는 등 다이내믹한 연구를 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낙농국가인 덴마크에서 러브콜을 받아 공동연구도 진행중인 서 교수는 "대량생산된 물질에서 모유성분 순도 95% 이상으로 만드는 분리정제기술과 제품임상허가 등 갈 길이 멀다. 기술이전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라며 "유전적 결함으로, 혹은 사회생활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산모들에게 핵심적인 당물질을 제공하고,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식품소재로 활용 가능하도록 꾸준히 연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영 기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푸드를 선도하는 헬스케어푸드기업, 인테이크푸즈를 만나다

인테이크푸즈 CEO 한녹엽 인테이크푸즈 CSO 김정훈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2015년 현재 27.1%)이나, 기존의 서비스나 상품들은 대부분 4인 가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혼자 또는 둘이 이용하는 '싱글족'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기존 식품의 포장방식은 미처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소포장 식품을 선보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테이크푸즈(Intake Foods)'를 만나보자.

농기자 반갑습니다. 독자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인테이크푸즈 안녕하세요. 인테이크푸즈의 CEO 한녹엽, CSO 김정훈입니다. 저희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전공 06학번으로 2013년 식품 벤처 인테이크푸즈를 창업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학생들이 식품 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려고 시작해, 좌충우돌 배우며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농기자 이전에도 창업을 여러 번 하셨던데 어떤 사업들이었나요?

인테이크푸즈 창업멤버 네 명은 서울대 학생벤처네트워크(SNUSV)에서 함께 만나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창업 경험을 쌓았고, 또 여러 차례의 실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또 도전했고 지금은 식품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인테이크푸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 멋집니다.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인테이크푸즈 인테이크푸즈는 라이프 스타일 푸드를 지향하며, 다양한 섭취자의 생활패턴과 수요에 맞는 식품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용식, 자연 간식, 서플리먼트, 다이어트 등의 식품군을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범위를 더욱 확장해 현대인을 위한 헬스케어 회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기자 네, 헬스케어 회사로 발전할 인테이크푸즈의 미래가 기대되는군요! 저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Eating과 Intake는 같지 않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인테이크푸즈 처음에 이 슬로건을 생각하게 된 것은 회사명을 만들 때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식품회사는 어떤 회사일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식품이 단지 배부르고 맛있는 관능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바뀐 삶들이 모여서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그리며, 저희는 'Intake(섭취)'를 단순한 'Eating'의 너머에 있는 먹는 것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식품을 만들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자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간편한 아침식사 대용식, 모닝죽

미래형 대용식, 밀스

농기자 식문화를 선도하는 인테이크푸즈,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인테이크푸즈 저희가 만든 '인테이크 백서'에서는 인테이크의 스피릿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척정신과 사명감, 쫀득한 팀웍, 간결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고효율의 프로페셔널리즘, 빠른 시도와 빠른 개선, 대안이 있는 반대, 자기 자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인테이크는 벤처기업이며, 각자가 일당백을 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자기 분야에서 개척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주도해 나가는 분들이 저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저희와 공통분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농기자 농생대 재학생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인테이크푸즈 아직 저희의 경험은 짧고 이룬 것은 부족하지만,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빠르게 시도하고,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경험이 없기에 많은 일들을 직접 부딪쳐 가면서 겪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나와서 판단하는 것이 저희의 성장을 위해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을 진행한 다음에는 이 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고 싶은 일인지를 판단하여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지금껏 해온 것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시도할 용기를 낸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학생기자단 제5기 **이상욱** 제6기 **송이레** 제7기 **신예현**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5,151,879,543원

기금출연 (2016 . 07. 01. ~ 2016. 09. 30.) 당기 누적금액 : 384,428,886원

1억원 이상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동창회	207,917,797

1000만원 이상	
대동공업주식회사	50,000,000
정윤환	50,000,000
몬산토코리아유한회사	20,000,000
아시아종묘(주)	10,000,000
이흥구	10,000,000

100만원 이상	
故 김성수	5,281,154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5,000,000
㈜누보	5,000,000
서울신문	3,000,000
㈜팜스코	3,000,000
㈜한성티엔아이	3,000,000
최희천	3,000,000
㈜카길애그리퓨리나	2,000,000
익명1	1,249,995
강창희	1,000,000
전성은	1,000,000

100만원 이하	
윤철희	600,000
박승제	300,000
송인홍	300,000
익명3	300,000
강문성	249,990
김준	249,990
손영환	249,990
이인복	249,990
최인규	249,990
최진용	249,990
김성배	240,000

100만원 이하	
강상호	150,000
우제성	150,000
현진호	150,000
익명2	150,000
하기호	60,000
서민영	30,000
손창은	30,000
류준구	20,000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서울대 농생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의 엄정한 관리 하에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가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선(善)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농생대 및 조국의 발전, 나아가 온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이사장 정 철 영

[출연방법 안내]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snu.or.kr) 안내 참고

· 문의 및 연락처 : Tel. 02-880-8004, 871-8146 / Fax. 872-4149

2.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발전기금 출연

· 참여방법 : 참여 신청서 작성 후 무통장 입금

· 계 좌 : [농 협] 301-0098-3482-21 (예금주 : 농생대교육연구재단)

· 혜 택 : 연말소득공제, 공간 네이밍, 우리대학 주최 행사 우선 초청, 우리대학시설 이용서비스, 기부자예우프로그램 등

· 문의 및 연락처 : Tel. 02-880-4510 / Fax. 873-5579

People 농생대 사람들

[동문동정]

▶ **이진찬** 동문(농생물학 85)이 7월 4일 고양시 제1부시장으로 취임하였다.
▶ **정황근** 동문(농학 79)이 8월 17일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하였다.
▶ **윤상현** 동문(농경제 94)이 9월 1일 한국콜마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 **정성봉** 동문(농업교육 63)이 9월 6일 청주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 **허태웅** 동문(농학 85)이 9월 12일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취임하였다.
▶ **임상섭** 동문(조경학 90)이 9월 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하였다.

[교수동정]

강병철 교수

▶ **강병철 교수**(식물생산과학부)의 "종자강국을 선도할 현장 육종인력 양성" 연구가 7월 7일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양태진 교수

이기원 교수

▶ **양태진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7월 18일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아시안뷰티연구소 주최 '고려인삼 헤리티지 및 피부 항노화 연구' 심포지엄에서 인삼 유전체 정보 해석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이기원 교수(농생명공학부)는 같은 심포지엄에서 인삼 성분의 피부 미백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광범 교수

▶ **이광범 교수**(농생명공학부)가 8월 10일 제9회 여천생태학상을 수상하였다.

서진호 교수

▶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가 8월 17일 개최된 한국식품과학회 2016년 국제심포지움에서 "Application of Microbial Factory Technology to Food Biotechnology"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7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비상임이사로 재선임되었다.

한재용 교수

▶ **한재용 교수**(농생명공학부)가 9월 5일부터 9일까지 중국 북경 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er (CNCC)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가금학회 학술대회에서 "Genome Editing and Its Applications in Poultry"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용환 교수

▶ **이용환 교수**(농생명공학부)가 9월 21일 제61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하였다.

[동창회 소식]

▶ 동창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동창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9월 10일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농학교육 110년 기념식'의 1부 행사로 동창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임시총회에서는 동창회칙 수정안 및 2018년 동창회 70주년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농학교육 110년을 계기로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를 정리 · 보존하여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져 가칭 '농학역사관' 설립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신임 농촌진흥청장 정황근(농학79) 동문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농교육81) 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하였으며, INGIS 이규현(농공81) 동문과 82학번대표 팽기석(농공82) 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참석한 동문 대부분이 오후 기념식까지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고, 폐회 후에는 이종기(농화학75) 동문이 후원한 와인과 오미자 건강쥬스원액 등이 기념품으로 제공되었다.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jhw1234@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공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작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